

## 신년사 2020년 1월 1일



동남쪽 하늘에 먼동이 트고 있습니다. 살림이 풍성해진다는 庚子年경자년 새 아침을 맞이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편집회 소식을 드립니다. 1974년 7월에 미국땅에서 우리의 시계탑 발행이 시작된지가 이제 46년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체험한 경험담은 물론 문학, 음악, 미술, 역사, 철학, 여행기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여러분께서 시계탑에 발표하셨고 생활의 지혜를 이 신문을 통하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불의 발견으로 시작한 인류가 1,2차 산업 혁명을 거쳐 현대 문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시계탑을 통하여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노용면님을 비롯하여 김병석, 김승업, 이희경, 허선행, 송관호, 유진일, 서량, 임안무, 이원택, 노재홍, 서인석등 열두 분의 전 편집장님들과 많은 편집위원님들이 그동안 쏟은 선구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모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1994년 부터는 시계탑 기사를 바탕으로 문집을 5년마다 발행했으며 금년에도 제 6집(2014-2019)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들 중에는 다른 대학 출신들 보다는 의학 이외의 여러방면에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글들이 시계탑에 실려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995 년 부터 지구상에서는 3 차 산업혁명을 거쳐 근래에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는 4 차 산업혁명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창회도 인터넷을 통한 이런 전자 정보시대에 맞추어서 시계탑 발행은 물론 그와 병행하여 동창회가 주관하는 Web Site 를 미국 수도 버지니아에서 44 대 회기인 2016 년 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snucmaaus.org](http://snucmaaus.org) 로 들어가면 미주 우리 의대 동창회소식, 장학회 소식, 예술작품, 젊은 세대 소식을 신속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4 년간의 시계탑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을 주광국, 송경민 두 동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계탑 신문과 Website 는 언론 분야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며 동창회 전회원을 위한 귀중한 눈과 귀요 입입니다.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 내용이나 치우친 개인적인 표현이나 생각 또는 한두 명의 의견에 동요 되어서는 안되는 오랜 편집회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회 위원들은 외부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동창회 안의 독립적인 조직임을 지난 동창회 이사회에서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 편집회는 준수할 것입니다. 원고를 보내시는 분은 표준 철자법을 지켜야합니다. 2 년 전 시작한 시계탑의 컬러 디자인과 종이의 질의 향상으로 독자들의 관심과 원고의 투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집의 발행에 예상 이외로 많은 동문들이 물심 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문집 6 집은 3 월 말까지 인쇄와 수송이 예정되며 4 월 2,3,4,5 일 Westin Hotel Tysons Corner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37 차 학술대회에 오시면 책을 우선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워싱턴 벚꽃의 관광 계절이고 사모님들이 근처에 쇼핑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박종철 님이 주관하는 Scientific CME Part 는 물론 김영애 님이 주관하는 Non CME 의 교양 강좌에서 훌륭하신 강사진(강수상, 서량, 최연홍, 이영목, 강창욱, 온기철, 박종희 등)님의 흥미로운 문학, 철학, 역사 강의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새해에 모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계탑 편집장, 37 차 학술대회 Convention Chair**

**서윤석**